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

덩켈, 11월초까지 협상초안 마련키로

농림수산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작년 브뤼셀 각료회의시 제출된 헬스토롬 농산물 그룹의장의 제안서를 대신하여 금년 2월말 가트(GATT)의 던켈 사무총장이 제출한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고려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지난3월부터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급 협상을 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트의 던켈사무총장은 이 협상을 타결짓기 위하여 10월말 내지 11월초까지는 협상초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우리의 주장을 설명한 것이다.

〈전호에서 계속〉

특히 던켈총장의 협상초안이 나오기전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해서 가트에 전달하기로 하였고, 생산자단체인 농협도 이러한 뜻을 던켈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던켈사무총장이나 미국, EC, 호주 등 주장하는 관세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저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구내외적으로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다.

국내보조분야에 관한 우리 입장

국내보조분야에서는 허용정책을 나열하고 허용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감축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허용정책은 크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예:시험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및 판촉서비스)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직접보조(예:휴경보상, 재해구호, 영세농소득보상등)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허용대상 직접보조에 생산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지원(예:농지구입, 농기계 구입)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산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지원을 허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EC, 일본, 스위스 등 역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등 수출국은 허용을 반대하거나 일정기간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連載 裁培教室

'91新規會員을 爲하여

구기자 (枸杞子)

生藥名:구기자 Lycii fructus、지골피 Lycii cortex、구기엽 Lycii folium

효 용:지골피 및 구기엽은 해열약으로 사용되며 허약자의 강장약으로 쓰인다.

1、성장

우리들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잎이 떨어지는 관목으로 키는 1백80~2백40cm에 이르고, 가지는 기부에서 뭉쳐 자라며 가지 겹질에는 긴줄이 쳐 있다. 잎은 부드럽고 톱니가 없는 긴 둥근꼴이다. 여름에 잎 옆에서 작은 꽃가지가 자라며 가련한 보라빛의 작은 꽃이 피는데 서리올때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며 빨간 열매가 맺는다.

2、재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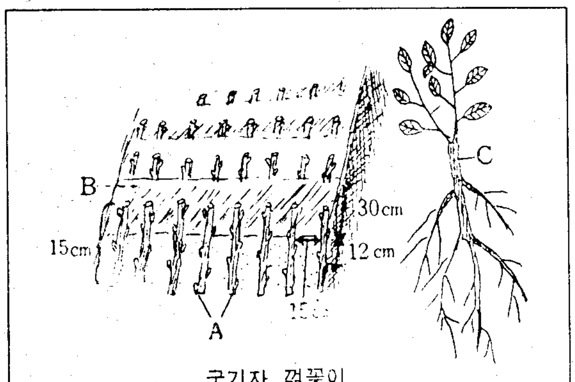
①재배 적지

내한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각지에 재배할 수 있다. 토질은 별로 가리지 않고 잘되지만 지하수위가 높아서 지나치게 습하거나 배수가 나쁜 땅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으며, 또한 습하고 걸은 땅에서는 가지나 잎만이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등정도의 땅에 배수가 잘되며 통풍과 햇볕이 잘 쪼이는 사질양토 또는 자갈이 섞인 땅에 잘된다. 이 작물은 일정한 밭에 재배하지 않고 과수원주위나 밭두둑 또는 산야의 개간지, 황무지 등에 심는 것이 토지이용상 유리하다.

②번식

삽목법, 압조법, 분주법 등에 의하여 번식할 수 있으나 주로 삽목법과 압조법으로 번식한다.

가、꺾꽂이법(揷木法):꺾꽂이의 시기는 봄 3~4월경과 가을 9~10월경이 適期이다. 그러나 7~8월의 생육왕성할때만 제외하고 어느 때든지 꺾꽂이할 수 있다. 그해에 자란 신초지로서 조직이 굳은 연필크기정도의 가지를 선택할 것이다. 또한 꺾꽂이감의 길이는 대개 15~18cm정도로 잘라 묘상이나 습기있는 본 밭에 바로 꽂는다.



구기자 꺾꽂이
A;삽수 B;삽상、C;신묘

꺾꽂이할 장소는 정식할 본 밭이나 과수원주위, 밭두둑에 직접 꽂지만은 노력과 토지 이용상으로 봐서 이롭지못하니 간단한 묘상에 꺾꽂이하여 육묘이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 하겠다. 꺾꽂이할 묘상의 위치는 별로 선정할 필요는 없지만 햇볕이 잘 쪼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적습사질양토가 가장 좋다. 삽목상은 넓이 1백20~1백50cm의 두둑을 만든 다음 30cm간격으로 12cm깊이의 골을 친다.

꺾꽂이감(揷穗)은 위아래가 거꾸로 되지않도록 싹을 살펴서 포기사이 9~12cm간격으로 비스듬히 놓고 끝이 3cm정도 나오게 흙을 덮어 가볍게 밟아둔다.

나、본밭 꺾꽂이법:늦가을에 이랑사이 1백20~1백80cm로 감자 두둑처럼 소로 갈아 두었다가 다음해의 이른봄에 갈지 않고 그대로 포기사이 30cm내외의 간격으로 1~2개씩 전기 묘상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꺾꽂이 한다.

1년동안은 그대로 생육시키며 이랑사이에 적당한 작물을 간작할 것이며, 그해 가을에 포기사이에서 한 포기씩 솎아서 이식하면 정식거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두둑에 심는 거리를 같이 하여 『X』꼴로 꽂게 되면 포기가 빨리 번성하여 정상적인 수확을 도모할 수도 있다. 본 밭에 꺾꽂이 하였을때는 1~2년동안 패모, 백합, 사후런 등을 간작할 수도 있다.

다、휘묻이법(壓條法):꺾꽂이로서 번식하는 것이 좋지만 이 방법은 7~8월사이에 꺾꽂이하지 않는 시기를 이용해서 길고 충실하게 자란 햇가지를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땅에다 묻어두면 1주일 내외로 뿌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얻은 모는 비오는 날을 이용하여 심고자 하는 곳에다 심으면 잘 자란다.

끝으로 포기 나누기법도 있지만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많은 면적의 재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③정식

정식할 시기는 그해 가을과 다음해 봄에 한다. 심는 방법은 밑거름으로 두엄, 過石, 草木灰 등을 넣고 본 밭에 꺾꽂이할 때와 같은 거리 간격으로 심는다.

④비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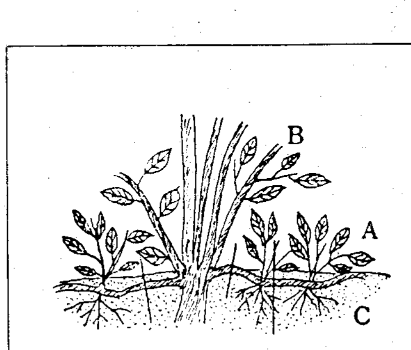
시비는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게 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며 화아형성이 되지않아 열매수확을 할수 없으므로 인산, 칼리등의 비료와 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시비량은 3년째 이후에는 人糞尿를 5월, 7월, 9월에 10a당 1천6백~2천kg정도를 나누어준다.

특히 구기자의 다수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중에 일단 낙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낙엽지게 하는 방법은 자연환경에 방임상태로서 할수 있겠으나 기대하기 어렵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낙엽지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밑거름을 줄때 인산, 칼리질비료에 치중하고 두둑을 높여서 배수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0cm이상 자란 것은 잘라 줄 것이며 낙엽질때까지 포기중간을 묶어주지 말고 가지가 흩어져 휘늘러지게 두었다



구기자 휘묻이법
A;발근된 모 B;모주 C;새뿌리

구기자의 施肥量(10a당)

거름종류	전량	밑거름	웃거름 1회(7월중)	웃거름 2회(9월중)
두엄	800 kg	800 kg	kg	kg
과석	60	60		
깻묵	60	60		
초목회	120	40	40	40
인분뇨	1200		800	400

가 낙엽이 되는 것을 보아서 7월중·하순경에 지상30cm내외 높이의 포기를 새끼로 묶어준다.

이때까지 낙엽이 되지않는 것은 무조건 거의 봄에 뽕잎 훑듯이 따준다.

이렇게 한후 소정의 윗거름을 주게되면 잎이 나오면서 잎 어깨에 많은 잔가지가 생겨 화아형성이 왕성해져서 개화 결실이 잘된다.

현재 농가의 울타리나 밭두둑에 자라고 있는 것은 가지, 잎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개화결실이 잘 안된다. 여기에 대하여 각 지방에서 많은 질문이 오는데 그 이유로서 위에서 말한 방법에 의한 肥培管理가 되어있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구기자나무는 묵은 가지와 세력이 감하거나 너무 약한 가지에는 꽃눈이 생기지 않으므로 해마다 지상부 가까이 強剪定을 하여 햇가지를 키울것이며 주로 햇가지에서 많은 꽃눈이 생기며 열매가 맺게된다. 그러므로 재배하는 구기자나무는 매년 이른봄에 얕이 베어줄 것이며 벤가지는 꺾꽂이감으로 번식하거나 땔나무로 쓸 것이다.

⑤병충해

병충해는 별로 없으나 구기응애의 해충이 늦은봄부터 발생하여 서리가 올때까지 잎을 해친다.

이 벌레는 육안으로는 볼수 없고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극히 작은것으로 잎뒤로부터 침입하여 잎의 거의 전면에 만연되어 침식하고 그 속에 알을 낳고 수없이 번식한다. 처음에 발생할 때는 밑의 잎부터 황연색의 반점이 생기며 병균의 침해한 것같이 보이며 점차로 커지면서 잎뒤에는 흑과 같은 것이 생기며 흑갈색으로 되고 종말에는 낙엽이 된다. 구기응애의 방제법은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른봄에 지상부의 가지를 벤 다음 싹이 다소 자랐을때 석회유황합제를 보메 5°로 조제한 것을 분무기로 압력을 가하여 두둑에 흙과 함께 살포해주면 초기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며 그후 발생하는 것을 보아 diazinon、folidol의 농약을 8백배액으로 발생상태에 따라 살포하였던 바 완전히 구제되었다.

3、수확·조제

정식한 당년 여름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9월경부터 열매가 붉게 익는다. 번식한후 2년생 나무에서는 말린것으로 3백g정도 수확할 수 있으며 3년째부터 6백g이상 증수된다.

익은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익는것은 수시로 따서 햇볕에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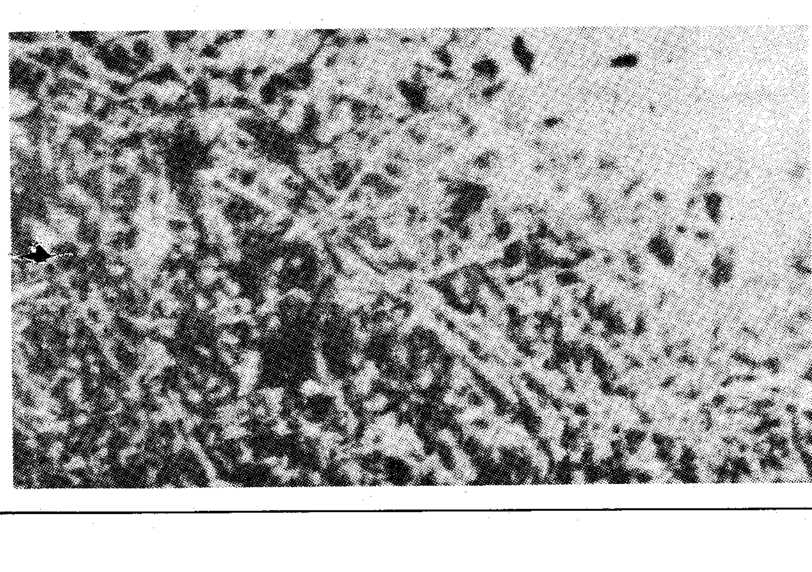
어느정도 마르면 뒤적거리지 말고 그대로 말린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터져서 씨앗이 나오며 색깔, 품질이 좋지않다. 대규모적으로 재배할때에는 화력건조할 시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때 주의하여 건조작업에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4、나무의 갱신

구기자 나무는 매년 낮춰 베기를 하기때문에 8~10년이 되면 자연히 나무가 쇠퇴하여 萌芽力이 약할뿐더러 경제적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미리 육묘번식을 하였다가 갱신시키는 것이 좋다.

뿌리는 캐어서 흙을 털고 심(뿌리의 목질부)을 빼내고 말린 것이 지골피이다.


◇구기자